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동북리 동북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  
양고출(여, 1930년생, 구좌읍 동북리)

- 줄거리: 제보자가 목포에 살았을 때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이다. 집안에 도깨비를 모실 경우, 음식을 만들면 가장 먼저 도깨비에게 떠 놓아야 한다.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도깨비가 집 주인의 밭에 수많은 돌들을 가져다 놓아 농사를 방해하였다고 한다.  
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도깨비에게 사정하면 다시 그 돌을 치워주었다고도 전한다.

**[제보자]** 육지서도야, 그 무시거 모섯당그네 잊어불영 밥이라도 영 제대로 안 떼 놓으면 기냥, 그 밭디 가그네 막 돌을 기냥 어떻게 헛던지 작지영 막 헤다 논덴.

**[조사자]** 밭디 돌을?

**[제보자]** 응, 저 어디서사 해온 덴가

“아이고, 나 저 잘못헛수다.”

무시거 헤여그네 막 모셔가문이 거 다 치와준덴. 게난 도체비가 그추록 무서운 거라. 육지서도 경 말헛게.

**[조사자]** 육지서도마씨?

**[제보자]** 응.

**[조사자]** 육지 어디서마씨?

**[제보자]** 우리 목포 살아난디, 그쪽 곶안게.

- 핵심어 : 육지, 목포, 도체비, 밥, 음식, 밭, 돌, 조상, 도깨비